

## 이코노 &amp; 비즈 피플

이계연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소기업·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

‘챙겨주는 서비스’로 잠재 요구 해결

착한기업·착한소비자 협의회 구성



“취임 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안주하지 않고 ‘챙겨주는 서비스’로 전남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6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이계연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 2년동안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한 차원 높은 ‘챙겨주는 서비스’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 도우미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챙겨주는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넘어 고객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잠재된 요구를 미리 찾아 해결해주고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챙겨주는 서비스’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도우미가 되기 위해 그는 ▲SNS를 이용한 마케팅 지원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컨설팅 ▲내 고향 명소 알리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이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전단지, 지역신문,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벗어나 최근 트렌드인 SNS 플랫폼을 이용해 재단과 소기업·소상공인,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등 모두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2000여명의 재단 SNS 인맥을 앞으로 1년내 1만명까지 확대해 SNS마케팅을 위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단 고객 중 유망 소기업·소상공인들도 SNS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중 정직하고 성실한 고객은 ‘착한 기업’으로 선정 SNS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기업 선정은 평소 재단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소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에 가격, 서비스(친절), 청결, 공공성, 기업마인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 된다. 현재 재단에서 SNS를 활용해 ‘착한 기업’ 후보

를 발굴하고 50개 업체가 확정됐다. 이 이사장은 “올 해 말 최종적으로 ‘착한기업’ 300개,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중 ‘착한소비자’ 200명을 선정해 ‘착한 기업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할 생각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1조원 달성을 대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이용 덕분에 지난 7월 보증공급 1조원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1조원 달성을 설립 후 2년만 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이는 도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 설립돼 지난 11년간 6만여업체에 1조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은행 봉사단 박람회장 청소

KJB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여수엑스포 폐막식 이후 광주은행 역사관봉사단 50여명과 함께 여수엑스포 일대를 청소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 한경연, 올 성장률 3.1%→2.6%로 하향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한경연은 15일 ‘KERI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을 지난 5월 발표했던 3.2%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미국의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을 하락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점을 하향 조정의 이

유로 들었다. 고용이 둔화하는데다 금리 인하 등 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여력이 제약을 받아 내수 여건 개선이 어려운 점도 꼽았다.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물가 하락 추이를 반영해 기준 전망치인 3.1%보다 0.5%포인트 낮춘 2.6%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가계 부채의 취약성, 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오늘부터 전면파업

노사 최종교섭 결렬…지역경제 피해 우려

금호타이어 노사가 파업을 일시 중단한 채 사흘동안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예고한대로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15일 금호타이어 노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제25·26·27차 교섭을 91시간 열어 임금 등 생활사항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시족은 집중교섭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격려금 성격의 일시금을 증액한 수정안을 내놨다. 사족은 지난 5월 상여금의 125%(310만원) 일시금 지급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150%(4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또 정년 2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도급사원 평균 임금 적용, 임금 관련 노사공동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최종안으로 제

시했다. 다만, 쟁의행위 금지와 2010년 노사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준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막판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16일 오전 6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 이날 오후 6시 광주공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면 금호타이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한 달 여간 부분파업으로 생산 손실액이 900억 원을 넘어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금호타이어를 방문해 김창규 대표 이사와 이광근 노조 지회장을 만나 ‘상생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노사 양측에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결국 임금 액수보다 워크아웃이라는 원칙 복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교섭의 핵심은 노사합의서 준수 여부였다.

사족은 워크아웃이라는 현실을 직시해 노사합의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상황을 반영해 임금 반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금 액수보다 워크아웃이라는

## 주택담보대출 부실

6년만에 가장 높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실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이 0.67%라고 15일 밝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부실비율은 2006년 6월의 0.71% 이후 최고치다. 전체 가계대출 부실비율도 0.76%로 2006년 9월의 0.81% 이후 가장 높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실비율의 분자(부실채권 잔액)가 분모(대출 잔액)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부실비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 27.3%(5000억원) 증가하고 대출잔액이 1.5%(4조6000억원) 증가해 부실비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은 은행권의 대출 건전성 관리에 악영향을 줬다.

## 주택담보대출

부실

## 외국 명품업체 매출·순익 매년 급증

### 번 돈 대부분 본국 송금…기부 인색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국내 매출 상위 10대 외국 명품 업체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한국에서 벤 돈 중 평균 40% 가량을 본국에 보냈다. 일부 업체는 순이익 90% 가까이 송금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지난 6년 사이에 수천억원의 돈을 벌었지만, 국내에 기부를 위해 내놓은 돈은 10억 원에 불과해 한국 시장에 대한 배려가 전무했다.

15일 재벌닷컴이 내놓은 ‘국내 매출 상위 10대 외국 명품업체 한 국법인 경영현황(2006~2011회계 연도)’을 살펴보면 이 기간 명품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은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10대 법인의

총 매출은 2006년 6489억원에서 작년 말 1조8517억원으로 2.9배로 늘었다. 당시 순이익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 같은 기간 총 457억원에서 1870억원으로 무려 4.1배로 증가했다. 이중 프라다는 2006년 271억원이던 매출이 작년 2513억 원으로 9.3배, 당시 순이익은 4500만원에서 532억원으로 무려 1182배나 폭증했다.

조사 대상 10개 업체의 배당금 총액은 2006년 12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607억원으로 무려 5배로 증가했다.

지난 6년 동안 국내에서 올린 누적 순이익 6923억원 가운데 누적 배당금으로 2688억원을 가져간 것이다.

〈연합뉴스〉

**환상제주 여행시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299,000~**

**왕복 2박3일 (블루나라) 1인 ₩209,000~**

**왕복 2박3일 (씨스타크루즈) 1인 ₩199,000~**

**제주도 골프투어+항공+골프패키지 1박 2일**

**여행사 파트너 모집**

**환상제주 여행문의**

1일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미팅  
이호우해변(제주도) or 몰래4코스 체험(용암~도두동)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호텔 조식 후 관광 - 성평의축제(남인의 삼을 “성남삼” 사용 - 한려산 스키터널 경유  
제주리자연환경공원 - 석부리마공원 - 중식(고등어조림) - 제주국제평화센터

(선택관광) 산방신유한관 - 화순꽃자왈 생태탐방길(트레킹) - 칭기스칸의 검은 깃발\* 더마파크 공연  
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탐라원(토산품점쇼핑) - <선택관광> 매직아일랜드 or 라스베가스 매직타이거  
심나무술길 경유 - 70년간 사찰에 몸과 잊혀지는 옛 모습! 선녀와 무모 - 조립밀승마체험

3일 천지자리 아름다움이 있는 미천굴관광지구 일출랜드  
성선암출동의 아름다운 자태와 탕 트인 해안절경 섬지코지  
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 헤네온 - 능수수를 소탕  
제주공항 도착 후 티켓팅 - 광주공항 도착

■ 공통포함항공: 왕복항공료, 그린피 36홀 + 골프클럽 + 호텔 1박2일(제주도) 사용(기사당 통행료 포함)  
■ 공통포함항공: 캐디피, 카운터, 식사, 우편물증정(기사당 24,200원), 전 일정 석식, 기자카드 텁 1인 10,000원, 선택관광  
■ 선택관광: 산방신유한관(5,000원), 매직아일랜드(성인 15,000원), 라스베가스 매직타이거(성인 20,000원)

주중 ₩449,000~ / 주말 ₩539,000~  
주중 ₩519,000~ / 주말 ₩609,000~

\*상품기간: 2012.07.20 ~ 2012.08.31 \*버스페키지 개요금 50,000원  
**특급호텔과 함께~ 바캉스여행 특가!! 2박3일**

**신라호텔 (8월 7일~26일 출발)**  
+ 항공료, 숙박료, 조식 2회, Y금 혼트카 5시간 / 1인/원주기, 전망추가 별도문의  
**1인 ₩700,000원 ~ 740,000원**

**하얏트호텔 (8월 10일~26일 출발)**  
+ 항공료, 숙박료, 조식 2회, Y금 혼트카 5시간 / 1인/원주기, 전망추가 별도문의  
**1인 ₩639,000원**

**하얏트호텔 (8월 27일~9월 15일 출발)**  
+ 항공료, 숙박료, 조식 2회, Y금 혼트카 5시간 / 1인/원주기, 전망추가 별도문의  
**1인 ₩569,000원**

\*\* 하얏트특전 8월 14일~26일 투숙일기준(1박당 1인비례무료) / 등반 성인 및 소아 20% 할인